제 225 호

사순 제 3 주일

1977. 3. 13.

숲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론 □

한 가 지 만

소 순 형 신부

공으로 무엇이 굴러 들어오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력이나 수고를 들이지 않고 어떤 성공이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시험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한 그만큼,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기쁨의 정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부활과의 관계도 그런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사순절의 중반기에 들어섰읍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사순절의 시작일인 재의 수요일에 어떤 결심들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만큼은 꼭 …을 실천해 보아야지」하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간단히 할수 있는 선행들 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좋지 못한 악습이나 결점들의 개선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한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순절을 맞고, 또 흐르는 시간에 따라 부활절을 맞이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순절이나 부활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수고 수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로 들어가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사순절이 의미가 있어야 뜻깊은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준비없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무것이나 「한가지씩만」 다시 한번 결심해 봅시다. 조그마한 선행도 좋고 악습중의 하나를 고쳐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나 자신도 사순절을 교회의 뜻과 함께 지낸다면 부활절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함과 동시에 자신도 역시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예컨대 악습들중의 하나에 눌려 사는 자신으로 부터)부활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 가지만」 정해 봅시다. 마음속에서 방금 떠오른 바로 그 「한가지」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나도 이번 사순절에는 나름대로 참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저 맞이하는 부활이 아니라 어떤 무엇으로부터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남은 기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팔마 천주교회 보좌신부〉

그 눈, 눈빛 들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내버스를 바라보는 그 눈, 눈빛들이 자꾸만 무서워진다.

언제부터인가 전주에서도 출근시간에 시내버스를 타는 일은 일종의 전투에 가까워졌다. 단단히 마음을 도사려 먹지 않고는 도저히 버스에 매달릴 엄두가 나질 않는다. 사람만 타기도 비좁은 버스안에 무거운 책가방들까지 끼어드니 도무지 제정신들이 아니다. 짓눌리는 고통에 욕설이 튀어 나오고 비명이 터져나온다. 그래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몰려드는 승객들로 버스 승강구는 차가 떴을 때마다 아우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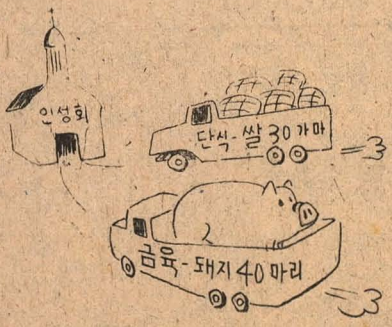
이런 난리인지라 내릴 손님이 없는 승강장에는 탈 손님이 있어도 버스는 그냥 줄행랑이다. 발을 동동거리며 저만큼이나 무거운 가방에 몸을 던진 어린 여학생들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하다 못해 노기까지 서려있다. 순진해야 할 어린 소녀들이 벌써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것일까? 그렇게 미움이 싹트는 눈빛이 무서워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각했다는 꾸중이 그들의 눈빛을 더욱 일그러뜨리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정해놓은 제도나 규칙을 「이유없이」 지켜야 한다고 설치기도 한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작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입을 꽉 다문다. 무게있게. (?)

출입금지의 팻말을 무시하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통로를 내주었다는 대학교 총장을 꼭 외국에서나 찾아보아야만 하는가?

왜 미움이 가득한 눈빛들이 하나 둘 불어나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마르코 2, 27)

숲 정 이 산 책



3월 18일 전주교구 신자가 공동 보속을 한다면 얼마나 될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김 재 덕 주교

여전히 신문의 사회면은 흉악범을 비롯한 여러 비행사건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모두 이른바 사회악들로서 인간행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근래 십수년간에 급격한 변동을 겪어온 가운데, 시민대중의 생활은 안정감이나 미래지향성(未來志向性)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초조가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인, 폭행, 강도, 유괴같은 비정상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 모른다. 게다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구풍조의 영향을 받아 사회는 대중화하고, 시민은 막연한 불안상태에서 고독화·비인간화의 길을 면치 못하고, 생활감각은 더욱 관능화(官能化)·충동화(衝動化)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누구보다도 반응이 빠른 것은 10대 소년, 그중에도 특히 학생들이다. 오늘의 갖가지 소년비행의 족출(簇出)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으니 민족의 장래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현대를 흔히 병든 사회, 인격해체(人格解體)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런 증상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현저한 병리현상(病理現象)이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특히 오늘의 한국, 또한 이러한 병폐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존엄한 인격과 신성한 자유를 부여받은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인격형성의 근본 바탕으로서 아무에게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될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 권리이다. 만일 이것이 짓밟히고 침해될 때, 인간은 그의 인격마저 잃게 되고 여러가지 병리현상을 일으킬 사회악의 불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의 초점은 오늘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예사로 유린되고, 최소한의 자유마저 짓밟히는 한, 결코 우리에게는 밝은 사회가 기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무거운 먹구름이 이 땅에서 가셔지도록 온갖 힘을 다해야만 하겠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 했으니, 이 봄과 함께 이 땅에도 인간존엄성이 존중되고 참된 자유가 펴짐으로써 사람들의 마음도, 이 나라의 긴장상태도 확 풀렸으면 한다.

(윗 글은 **경향잡지** 77년 3월호 권두언임 —편집자)

□사순절 운동□

인 성 회(仁成會)

—3월 18일은 왜 단식하나?

—인성회 성격과 사업내용은?

『자선사업, 구호사업, 복지사업, 개발사업 등 교회의 대 사회사목(對社會司牧)을 관장합니다. 종교,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특히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 즉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그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기존사업과 활동을 기본 단위인 교구를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이를 육성, 격려, 권장하고 조정하여 협력하는 일이지요. 말하자면 복덕방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주교회의가 전국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교회내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집약하고 외국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적절히 조정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각 교구의 이러한 사업을 지원육성해야 합니다. 우선 긴급구호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지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교구위원회가 없는 곳의 조직을 마치고 신자들의 의식계발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일반 교우들이 이웃사랑에 대해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극히 냉담한 형편이어서 이런 실천적인 교육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1977년 1월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구대표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업으로 「사순절 운동」을 전국적으로 펴나가겠읍니다. 이웃을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자는 운동으로 사순절의 공동보속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의식교육과 아울러 단식재를 통해 자선사업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모금 활동이나 헌금요청을 보면 신자들에게 부담감만 더해 줄 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이번의 「사순절 운동」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을 새롭게 일깨운다면 기대 밖의 엄청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순 제3주 금요일(3월 18일)을 '단식일'로 정하고 그 희생의 몫을 자선사업을 위해 헌금키로 했읍니다. 헌금된 기금은 교구 위원회 관할 하에 교구내의 활동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고 전국적인 활동을 위해 그 5%만을 전국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읍니다. 이기금은 각 교구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운영될 것입니다.』

(이 대담에 답변해주신 분은 인성회 총재 **지학순** 주교님입니다.)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 심 당 한 약 방

이 성 범(펠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 성 당 시 계 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②3301 (자택 ②8548)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임 정 원(도민고)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②5986·②2765

□시대의 징후□

시인 김지하의 『신앙』 보증

-260여명의 신학자 국제서명

시인 김 지하(金芝河, 프란치스꼬, 35세)는 12월 31일 반공법 위반사건 공판(서울지법, 제 8형사부)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공판에서 그는, "피고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다"고 하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서종일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가톨릭의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해방을 원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해왔다. 김 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그의 「양심선언」등에 나타난 사상의 '신학적 감정'을 예수회 상지(上智)대학 신학교수 A. 니콜라스 등에 의뢰하는 한편, 김 지하의 신앙 보증을 위해 국제적으로 신학자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구미와 제 3세계에 걸친15개국의 신학자 200여명이 호응했으며, 김 지하가 「양심선언」에 인용한 독일의 유력 신학자 멧츠(가톨릭)와 몰트만(개신교)도 가담했다. 일본에선 하마오 주교(동경)를 위시한 방인 성직자 및 선교사 54명이 서명했다. 그 서명장은 지난 12월 29일 동경기자회견에서 공표되었다.

한편 한국 예수회 신학원장 이 한택 신부는 이번 공판에서 논쟁의 초점이 된 김 지하의 「옥중 메모」에 대한 장문(長文)의 「감정서」를 집필하여 김지하의 주장을 지지했고, 71년 부활절에 김 지하를 영세입교시킨 지 학순 주교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시인 김 지하는 진실을 밝히는 시인적 사명에 충실한 시인이면, 철저한 신앙에 입각하여 복음정신을 실천하는 사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마련, 가톨릭 44명 개신교 41명의 양심적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지 주교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시인 김 지하의 「옥중 메모」는 그 대부분이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주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사회선교의 새로운 사조와 일치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시인 김 지하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전체의 복음실천운동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문학계는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는 그의 공판을 주시하고 있다."

260여 명의 신학자, 성직자에 의한 국제서명장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시인 김 지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심이 두터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굳이 믿는 바이며, 자신이 〈가톨릭 급진파〉라는 그의 주장은 가톨릭 신학에 의해 분명히 지지받고 있다. 우리의 이와같은 확신은 김 지하의「양심 선언」, 공판중의 그의 진술, 그가 옥중에서 쓴 메모 등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었다. 그가 표명하는 사상은 최근의 여러 교황의 사회회칙, 예컨데 「어머니와 교사」, 「민족들의 발전」등에서 볼 수 있는 가톨릭의 사회교설(敎說)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지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서 우러난 행동과 그의 이 신앙증언을 깊이 존경하며,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심이 두터운 가톨릭 신자임을 보증한다."

김 지하는 종합 잡지 「사상계」(70년 5월호)에 장편 풍자시 「오적」(五賊)을 발표, 일약 유명해졌으며,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74년 7월 군법회의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5세밖에 안된 김 지하이지만 그 문학활동과 민주회복을 위한 정치적 행동에 의해 이젠 개인 김 지하가 아니다. 그가 상징하는 것은 이 나라 역사의 장구한 세월과 그 속에 살아온 민중의 한(恨)이자 한 민족의 새로운 태동을 암시하는 청춘의 절규다

(윗 글은 경향잡지 77년 3월호 56~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재한 것임-편집자)

※ 3·1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을 위한 성금 12,500원
공소회장 연수회 (3,2-4)에 참가한 66명의 회장님들이 정성을 모으셨읍니다.

□때늦은 소식(3월 6일자 대전 주보 6면)
2월 20일자 대전주보가 교우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난을 당했답니다.

□우리 교구보 숲정이도 배달 사고가 잦습니다 편집실로 연락해주세요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최 씨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최 병 화(그레고리오)
☎ ② 5216

□이 전 안 내□
성 원 약 국
성 원 표(스테파노)
□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③5780

지업부 : 벽지. 장판. 각종 비니루
문방구 :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 아 상 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 경 암 (레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06번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암(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 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 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3월 18일에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는 공동 보속의 의미로 단식재를 지켜, 그 몫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 헌납합시다.
2. 중·고등 교리 경시 대회 성적 우수 본당 합열(평균 75.5점), 최다수 참가 본당 수류(52명)
   중등부…1위 곽동만(둔율동, 97점), 2위 석정희(함열, 95점), 3위 이수정(저학동, 94점).
   고등부…1위 김용신(북자, 92점), 2위 박연옥(고창, 90점), 3위 최명숙(대야, 89점)
3.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오늘 오전 10시, 가톨릭센타, 참가비…1인당 400원)
   참가…① 각 본당 신구임원, ② 교리 경시대회 수상자(위 6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10,000원씩 지급함)
4. 프란치스꼬 재속 형제회 연수회(26일〈토〉 오후 1시—27일 오후 4시, 가톨릭센타, 회비 1,000원)
   형제회원과 참가에 뜻있는 교우들은 노송동 천주교회에 연락바람
5. 군옥지구 연합 청년 및 학생회 지도에 소순형 신부, 엄기봉 신부님 그간 수고하셨읍니다.
6. 팔마성당 낙성 및 주임신부 회갑 축하식에 기쁨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임신부, 사도회장
7. 전북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신입생 환영회(19일〈토〉 오후 3시, 중앙성당, 전북대 가톨릭 학생회 주최)
8. 여성 꾸르실리스타(1~3차) 동창회 (오늘 오전 11시, 성심여고, 회비 500원)
9. 덕진 본당 새 성당 기공식(20일 〈일〉 12시)

□김 재덕 주교님 서품 4주년(3월 19일), 우리 교구의 목자이신 주교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구〉이삭회 모임(13일 오후2시, 중앙성당 사무실. 목적…교리와 음악 그리고 대화를 통해 사랑과 신심계발)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사도회 월례회 : 13일 10시 미사후, 강당
2. 대학생회 : 13일 10시 미사후, 회합실
3. 꾸리아 월례회 : 13일 오후 2시, 강당
4. 공동보속 단식재 : 18일〈금〉, 불우 이웃위해 특별 봉헌있음
5. 주임신부와의 면담
   ① 수도원, 신학교 지원자 : 6개월전
   ② 혼인 성사 예정자 : 1개월전

※주인찾음 : 3개월전부터 자전거 1대 사무실에 있음
※감사헌금 : 박남주—5천원
□주일 봉헌금 : 109,69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병자방문 겸 봉성체 : 16일〈수〉 오후
   ※병자있는 가정에서는 본당 신부님께 연락바람
3. 사순절 특별강론 : 18일〈금〉 오후 7시반 ① 강사—오기선(요셉)신부님(한국 교회사 연구회에 계심
   ② 주제—우리의 선조 순교자들
4. 본당 낙성식 1주년 기념일 : 19일〈토〉, 오후 1시 특별미사 있음
   ※각 단체 회장님과 구역장님들 꼭 참석바람

□축 결혼! 박영근(가별)군, 백연옥(세시리아)양 14일〈월〉 11시
□주일 봉헌금 : 49,84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축성 기공식 신축연회 : 20일 공식미사 후
2. 견진성사 : 20일
3. 판공일정 : 마산리(14~16일), 전당리(16~18일)

□주일 봉헌금 : 47,67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미사시간 변경 : 오전미사—6시, 공식미사—10시 저녁미사—7시반, 어머니미사—〈월〉오전10시 어린이미사〈토〉 오후 4시
2. 사순절 특별 피정 : 23일, 24일, 30일, 31일 저녁 7시반 ※대상—성우회, L·M회, 복자회, 애령회, 기타 전신자님들
3.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교리교사 가정방문 : 14일부터, 부모님들 관심가집시다
5. 전례담당 : 신자들의 기도— 최요셉, 육루시아, 허데레사, 황프란치스코, 유마리아(미경)

□주일 봉헌금 : 49,38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선교주일 : L·M주최 십자가의 길
2. 학생회 입원단 : 회장—조상준, 부회장—유순남, 김명 총무—황정하, 서기—이영호
   ※입원회—12일, 정기총회—13일
3. 가정방문 및 반상회
   5반—15, 6반—16일, 7반—17일, 8반—18일
4. 애령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주일 봉헌금 : 36,41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성경·기도서 지참하여 미사에 참례합시다
2. 미납된 교무금 완납바랍니다
3. 유아세례식 : 매일 끝〈금〉 10시 어머니미사
4. 예비자 등록 : 본당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누갈다 유치원 : 3월 10일 10시 개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한 기 호
보좌 신부 김 윤 섭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자모회 : 10시 미사후
2. 성가정회 : 내일〈월〉 오후 2시
3. 가정심방 : 교동〈화·수〉
   ※사순절 묵상회—교동 교우만, 수요일 오후 7시반 미사후, 유치원
4. 토요일에 만납시다 : 치명자산, 미사—오후 4시
5. 신자·유치원생외 성당구내 출입 제한(수위)
6. 유치원 개원식 : 16일. 오전 10시
7. 성당 신축 모금 목표액 : 3천만원
   〈추진 임원단 결의—목적달성, 자원조달, 총화단결〉
8. 대건 신협 월례회 : 14일 19시 50분, 조합 3층 회의실
   ※성당건립 기금 제1호 : 행운의 황금 열쇠다(일금 10만원), 차후 발표

□주일 봉헌금…125,467원

* 인쇄 보광출판사 ☎ 3~3272